

News

당국 규제 풀자 부수업무 확대 나선 은행권

아시아경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지난달 부수업무 신고...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우리은행은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청
금융당국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하기로 한만큼 더 적극적으로 부수업무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 열린다...네이버페이 충전금은 하나은행에 보관

뉴스1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현재 여신전문금융법상 타 카드사 상품은 추천 불가했으나 규제 특례 부여
신한, KB국민, 롯데, 비씨, 우리, 하나카드 등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한 6개 카드사... 각 사는 4개월 내 부가조건 반영해 관련 서비스 출시 예정

금리 더 오르면 갈아탄다...정기예금 1년 미만 '짧게' 굴린다

머니투데이

5대 은행의 지난달 개인 정기예금 신규 취급액 총 41조 693억원으로 집계... 이 중 만기가 1년미만으로 짧은 단기예금 취급액은 17조 6,524억원으로 43% 차지
만기 6개월 미만의 초단기예금 취급액은 11조 7,968억원으로 28.7%... 향후 추가 금리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자 소비자들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모양새

너무 비싸 롯데카드 인수전 '찬바람'

머니투데이

롯데카드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롯데카드 보유 지분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진행... 하나금융그룹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계열 카드 사업 경쟁력 제고 계획
유력 인수 후보자들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MBK파트너스가 부른 매각목표가격이 너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 또한 순이익 호조 배경에 본업보다 기업대출 영향

손보사 압박하던 재보험 지출...역대급 침수피해 '방파제'

데일리안

국내 16개 원수손보사, 올해 상반기 출세보험료로 낸 비용 총 5조 7,2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 현대해상이 9,270억원으로 37.1% 증가
삼성화재 7,020억원으로 28.0%, 한화손보가 6,136억원으로 3.2% 증가... 리스크 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재보험료 확대 가능성도 존재

롯데손보, 운전자보험 '자부상' 보장 축소 예고...“14급 50만→30만원”

라이선스뉴스

롯데손보, 각 GA에 운전자보험 자부상 보장내용 변경안 공지... 부상등급 11~14급 판정 시 보험금이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
금감원의 운전자보험 자부상 경쟁에 제동 건 가운데 선제적으로 축소안 공개... 업계 누적 50만~90만원 사이인데, 롯데손보가 업계 누적 90만원으로 가장 높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 5곳 ↑ ... 경쟁 더 치열해진다

머니S

금융위원회, 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도 해당 서비스 준비 중... 이번 지정에서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계좌구분개설, 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부여

美증권업 양대강자 '위블' 한국 진출... MTS 판도 흔든다

IT조선

위블, 국내 증권중개시장 진출 채비 본격화... 최근 IFC에 이전 및 본격 출범 들어가... 향후 미국에서처럼 암호화폐 거래 지원 가능성도 존재
직접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증권사들과의 MTS 시장 격돌 예상... 간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매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플랫폼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